광주지방병무청 인터넷 방송국

입영자들의 병무 궁금증 직접 보고·듣고 즐긴다

광주지방병무청 인터넷 방송국 직원들이 'IKBN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손녀의 재롱이 그리운 할머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친구의 미소에 행복한 장애우, 사회복무제도는 이들에게 사랑을 줄 것입니다."

공익광고 캠페인이 아니다. '광주지방병무청 인터넷방송국'(이하·IKBN)(http : // gwangju.mma.go.kr/ikbn/)에서 신세대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에서 사람들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나오는 문구다.

광주지방병무청(청장 손종해)은 매달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서자, 신세대 병역의무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병무행정을 소개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했다. 신세대 병역의무자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병무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영상으로 제작하고, 인터넷 음악방송·최신 뉴스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 15명이 기획에서 제작까지

UCC 제공의 산실은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지방병무청 3층 자료실. 임시 스튜디오인 자료실에서 미디어 기술에 관심 있는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UCC Club'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카메라맨·연출자·아나운서 등 모두가 하나씩 역할을 맡아 뉴스를 제작하는데 여념없다. 1층 서버관리실 한 쪽에 마련된 편집실에서는 3대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편집한다.

제대로 된 스튜디오나 편집실이 갖추지는 못했지만 직원들은 일주일에 2~3번씩 모여 촬영·편집기술·인터넷 방송 기획 실무 등에 대해 공부를 한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모델로 출연해가며 제작하는 등 재능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UCC Club' 학습 동아리를 구성한 후 3개월 만에 30여 개 동영상을 만들었다.

딱딱한 이미지 벗고 친근 하게

다. 병무청, 병무행정과 관련한 뉴스를 전하는 'IKBN 뉴스', 남도의 명물을 소개하는 '남도의 맛과 멋', 손종해 광주지방병무청장의 인사말, 징병검사 과정, 사회복무 제도 등이 그것이다.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재밌는 캐릭터 플래시를 활용해 놀이동산 같은 느낌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15명의 직원이 기획·보도·촬영·편집·웹 팀으로 나뉘어 직접 UCC를 제작, 미디어를 활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KBN 뉴스의 아나운서인 고객지원팀 손정주(여·38)씨는 "아마추어들이 만들다 보니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면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IKBN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하루 일과를 UCC로 제작한 공익근무요원 생활백서 등 병역의무자들의 UCC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 강풍·호우피해 12억1,300만원

전남지역에 지난 11일부터 계속된 강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유실, 낙과 등 12억1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15일까지 지역에 따라 내린 비가 최고 순천 264㎜를 비롯해 보성 232㎜, 장흥 206㎜, 화순 200㎜ 등으로 목포·장성 등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4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누적 강우량은 평균 149.9㎜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순천 3억9천100만원, 신안 3억5천600만원, 완도 2억800만원 등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우량이 가장 많은 순천지역은 강풍을 동반한 집중 호우가 이어져 낙안면 등 배 주산지의 낙과 피해 면적이 123ha에 이르고, 여수와 진도지역은 조생종 벼 32.1ha가 강풍에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 가두리양식장 5개소와 축대, 선착장 2곳이 각각 붕괴되거나 파손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남구에 통일쌀 단지 조성

17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원산마을에서 통일쌀 가꾸기 남구 사업단지 조성식 및 현판식이 진행됐다. '통일쌀 가꾸기 광주전남운동본부'는 올해 원산마을 9천917.4㎡(3천 평)의 경작단지에서 500여t의 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대촌 지역에서만 6천6116㎡(2만 평)의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나라 대선후보 경선 금품 제공 혐의 포착 전남선관위 수사 의뢰

전남도 선관위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이명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전(前) 한나라당 목포지역 사무소 관계자 B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경선 선거인 C씨에게 현금 36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지난 13일 목포시내 모 식당에서 경선 선거인단 10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날 C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C씨로부터 이들에게 돈을 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B씨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봉투를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 및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선거인단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

"군의장 선거법 위반" 함평군 선관위 고발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정현철 함평군 의회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의장에 취임한 뒤 1년여 동안 의장 업무추진비 2천200여만 원 가운데 400여만 원을 자신의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정 의장은 이 비용을 주로 향우회 관계자와 면사무소 직원 등의 식사비와 격려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선관위 지도계장은 "검찰 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식사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역구뿐만 아니라 함평읍 등 다른 선거구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그런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전남 전력사용량 365만4천kW 사상 최고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철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사상 처음 360만kW를 넘어선 365만4천kW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일 최고를 기록한 359만5천kW보다 5만9천kW 많은 수치다.

또 전국의 전력 사용량도 지난 2004년 7월7일 5천만kW를 경신한 이래 사상 처음 6천만kW를 넘은 6천32만7천kW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 수요 발생시점의 전력 예비율(전력의 추가 공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은 10.5%로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전 전남본부 관계자는 "최대 전력 사용량 기록 경신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이 지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넘어섬에 따라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다음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력 수요도 연일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80억대 유사석유 제조·유통 4명 검거

여수경찰, 중간 도매상·판매책 등 수사 확대

호남과 충청권 일대에서 80억원 대의 유사석유를 제조·유통한 일당 4명이 경찰이 검거됐다.

여수경찰은 17일 광주지역에 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유통한 박모(43·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를 석유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사석유 원료 공급 총책인 성모(38·충남 연기군)씨와 제조업자 김모(34)·이모(3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업자 김씨로부터 유사석유를 ℓ당 1천원에 구입한 뒤 운전자들에게 1천5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광주지역 등에 유통한 혐의다.

또 원료공급 총책인 성씨는 같은 기간 유사석유 제조 업자 60여명에게 총 330회에 걸쳐 84억여원의 유사석유 원료 톨루엔(toluene)·솔벤트(solvent)·메탄올(methanol) 등을 ℓ당 65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자 김씨 등은 전북 익산에 저장탱크·출하대를 갖춘 공장을 차려놓고, 성씨로부터 구입한 원료로 9억여원의 유사석유를 만들어 전국 판매조직 70여 곳에 판 혐의다.

경찰은 성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제조업자(60명) ▲중간 도매상(70명) ▲판매책(40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전북 익산 제조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 6만ℓ와 제조혼합기 등을 압수하고, 유사석유를 사들인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만 18세 대학생에 주류판매는 정당" 광주지법 행정부

광주지법 행정부(김진상 부장판사)는 17일 호프집 업주인 최모(여·26)씨가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남구청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했다.

최씨는 지난 1월15일 밤 9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김모(1998년 1월11일생·대학 1년)양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양 등 1월1일부터 2월 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1년 먼저 입학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

박쥐떼 밤마다 주유소 습격?

쌍나팔

○…해남의 한 주요소에 수백 마리의 박쥐떼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

○…17일 해남군 황산면 부곡주유소 관계자에 따르면 8년 전 처음 주유

소를 찾은 박쥐들이 하나 둘 기둥 사이에 둥지를 틀면서 120여 마리까지 불어난데다 밤마다 떼를 지어 날아오르는 진풍경을 보려고 구경꾼까지 생겼다는 것.

○…주유소 이승재(47)사장은 "박쥐들의 서식지였던 인근 광산이 훼손되면서 주유소로 날아온 것 같다"며 "손님과 마을사람들까지 좋아해 쫓아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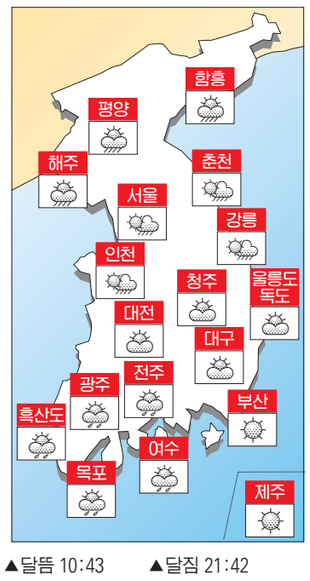
한때 소나기

낮 한때 최고 30㎜ 소나기가 오겠다.

8월 18일 (음 7월 6일)

◇전국날씨

광 주	한때 소나기	24~35℃
목 포	한때 소나기	25~32℃
여 수	한때 소나기	25~31℃
완 도	한때 소나기	24~32℃
구 례	한때 소나기	24~35℃
해 남	한때 소나기	24~32℃
장 흥	한때 소나기	23~32℃
고 흥	한때 소나기	24~33℃
순 천	한때 소나기	23~35℃
영 광	한때 소나기	24~33℃
진 도	한때 소나기	23~32℃
전 주	한때 소나기	24~33℃
남 원	한때 소나기	23~33℃
흑산도	한때 소나기	22~2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 05:15 17:41 썰물 〈 10:30 22:45
여 수 밀물 〈 11:59 --:-- 썰물 〈 05:42 17:53

▲해뜸 05:54 ▲해짐 19:18 ▲달뜸 10:43 ▲달짐 21: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날 씨						
최저/최고	24/31	25/32	24/31	25/32	24/31	24/32

38.8도 순천 올들어 최고… 나주선 일사병 숨져 광주·전남 폭염특보… 오늘 30㎜ 소나기

17일 광주·전남지역은 순천 낮 최고기온이 38.8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광주·순천·광양지역에 폭염경보, 그 외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광양 37.5도 ▲구례 36.8도 ▲광주 34.3도를 기록해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18일에도 광주·전남지역에 5~30㎜의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며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늦게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30~35도까지 올라 사흘째 폭염특보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칠석(七夕)날인 19일에도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 속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일 낮 최고기온이 34.9도까지 올라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에서 밭일을 하던 정모(85)씨가 일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폭염특보=하루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하루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폭염 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낮 최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